"천연물질서 치료제 추출 20년"

이학 부문

김 영 중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여성 과학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제정한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동아 사이언스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묵묵히 연구에 전념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미흡하나마 제가 해 온 일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되어 상까지 받게 되니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연물로부터 새로운 의약품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천연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 자생식물로부터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신약 후보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의약 또는 민간요법의 재료로 사용되어 온 식물자원으로부터 미량의 활성물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연구는 이 활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다양한 신물질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핵심과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Neuroprotective compounds from Oriental Medicine'이라는 연구와, 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천연물로부터의 간질환 치료 또는 뇌신경세포 보호 및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를 희망하는 후학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묵묵히 지키는 연구자야말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고교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는 이학의 일선에 있는 저로서는 매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연구 환경의 현실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공계 후속세대의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계의 과학기술 문제 해결사

공학 부문

최 순 자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 분야에 저보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선배님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 영광을 제자들과 후배 과학자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폴리올레핀을 포함한 고분자 블렌드의 특성을 개선하여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와 연계된 기술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공학 분야의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산학연을 연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산업이나 기업의 연구를 하다보면 학문과 동떨어진 연구에 치중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연구 결과가 값진 것이라도 그것을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하는 일은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은 산학연의 연구를 활발히 하여 인력을 산업계와 연계시키고 나아가 산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학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 논문을 권위 있는 세계 학술지에 발표한 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고 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여성 과학기술자상은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여성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됐다. 수상자들은 지난해 12월20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상장과 기념패, 상금 1000만원씩을 받았다.

과학기술에 관련된 일 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취미가 다양한 편입니다. 시간이 나면 고전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순이 되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연구 분야를 희망하는 후학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다섯 남매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간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 생각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두드리면 문은 반드시 열린다'라는 경구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이 말의 진리는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얼굴 : 사진 왼쪽부터 최순자(인하대 화학공학부) 교수, 오세화(한국화학연구원) 박사, 김영중(서울대 약학과) 교수.

"여성 연구원 근로 환경 조성하는데 최선"

과학기술진흥 부문

오 세 화

여성인력,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년 이상을 연구 활동과 병행하며 애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셨는지요?

경제력은 산업기술력에서 나오고 산업기술력은 과학기술력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학자들에게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최우선 과제가 아직도 연구비 확보라는 점을 볼 때 아쉽게도 큰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성 연구원들만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남녀 연구원 모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고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여성 연구원의 연구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연구원들의 문제는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육아, 가사와 가족관계, 취업과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적인 성차별 등등 어느 것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 과학기술자들에게는 먼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여성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다면?

과학기술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값진 일거리를 원한다면 과학기술을 택하십시오. 단, 미련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가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 전문가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글_이 철 | 본지 객원기자